

해외출장 결과보고

1. 출장목적: 대만의 쌀 수출입 실태 및 관련 정책 조사 출장

2. 출장자: 농업관측센터 승준호

3. 출장지 및 기간: 대만 타이페이, 2014. 4. 7~4. 10(3박 4일)

4. 방문처(면담자)

- 타이페이 A-마트: 陶嘉民(건화부 집장), 張嘉禾(집장)
- 쌀 수입업체 협의회: Luis Yang(TRCIA), Chao-Kai Lian(Song Agriculture Trading Company), Nick Chen(삼호미), Chang Li Chu(삼호미)
- 농업위원회: 陳建斌(부회장), 張金榮(과장), 陳素珍
- 대만국립대학: 吳榮杰(농업경제학과장)
- Tsaotun 농회: 林傳琦(농업위원회중구분서 부분서장), 蕭忠郁(충간사), 林家佑(농업인), 陳天色(농업인)
- Wufeng 농회: 黃景建(Wu-Feng 농회 중간사) 외 임직원

5. 주요 조사내용

대형마트 방문(4월 7일 오후 4시~5시 30분)

- 일시: 2014년 4월 7일(월), 16:00~17:30
- 장소: 타이페이 A-마트
- 면담자: 陶嘉民(건화부¹⁾ 집장), 張嘉禾(점장)

□ 대만은 대부분의 마트에서 수입쌀과 국내산 쌀이 혼합되어 판매되고 있음.

○ TRQ 외 수입물량이 마트에서 판매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됨.

- kg당 45NT\$의 관세가 부과될 경우 판매가격이 80NT\$ 이하로 형성될 수 없으므로 대만의 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수입쌀은 대부분 TRQ 물량으로 판단됨.

<A-마트의 국내외산 쌀 판매가격>

원산지	품종	가격(NT\$/kg)	브랜드명
대만산	자포니카	86.4	삼호미
태국산	향미	66.4	삼호미
베트남산	향미	49.8	삼호미
미국산	자포니카	59.8	삼호미

* 일본산 고시히카리는 보통 kg당 200NT\$ 이상에 판매되고 있으며, 조사당일 재고가 없었음.

□ 수입쌀 판매 초기 항의가 있었으며 소비자들이 호기심으로 수입쌀을 구입하기도 하였으나, 결국에는 대만쌀을 선호

○ 수입쌀 품질이 많이 향상되었으며, 브랜드도 많아진 것은 사실

○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규격은 3KG 소포장

□ 원산지 위반 가능성 여부

○ 과거에 수입산과 국내산을 50:50으로 혼합하여 이득을 취한 유통업자들이 있었으나,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임.



1) 곡물, 건어물 등을 취급하는 부서

대만 쌀 수입업체 협의회(4월 8일 오전10~12시)

- 일시: 2014년 4월 8일(화), 10:00~12:00
- 장소: 대만농업위원회 농량서 6층 회의실
- 참석자: Luis Yang(TRCIA), Chao-Kai Lian(Song Agriculture Trading Company), Nick Chen(삼호미), Chang Li Chu(삼호미)

□ Luis Yang(TRCIA)

- TRCIA(Taiwan Rice and Cereals Industrial Association)는 대만이 WTO에 가입할 당시 38개 정미소가 연합하여 설립한 회사
- 협회에서 수입을 하고, 38개 정미소에 분할하여 도정 및 유통
- 우리회사는 대포장(30kg) 위주로 유통하고 있으며, 캐터링 비중이 약 90%
- 대만의 쌀 시장은 삼호미(소포장)가 주도하고 있음. 대만 소매시장의 약 60%를 차지

□ Nick Chen(삼호미)

- 국내외산 모두 취급, 주로 소포장 쌀을 슈퍼마켓에 유통, 소포장외에 대포장도 취급
- 수입쌀 비중은 전체 물량의 10% 수준(2012년 1만 3천 톤)

□ Chao-Kai Lian(Song Agriculture Trading Company)

- 중부에 정미소 있고, 북부에는 유통조직을 갖고 있음
- 주로 찰쌀을 유통, 특히 WTO 가입 이후 국내산 이외 수입쌀까지 취급
- 대만은 2002년 WTO가입, 144,720(현미기준)톤을 의무수입하기로 하였음. 총물량 중 35%를 민간업체들이 수입, 65%는 농량서(정부)에서 할당하여 수입하기로 함.
- WTO가입하면서 업체들은 구조조정을 실시함. 즉, 삼호미 같이 국내산 판매가 높은 업체도 수입쌀을 판매하게 됨.
 - 삼호미같이 큰 조직이 있는 반면, TRCIA처럼 38개 업체가 모인 연합도 탄생, 우리회사(Song Agriculture Trading Company)는 단독적으로 수입하는 업체
- 대만의 민간 수입은 총 10개 정도의 업체가 대부분을 수입, 유통

□ 수입업체 자격요건

- 쌀만 취급한다면 수입자격 부여에 문제가 없음(개방조건에 있었음).

□ 대만의 TRQ 수입 방식

<대만의 TRQ 수입 물량>

단위: 톤(현미)

정부 쿼터(65%)		민간 쿼터(35%)	합계
정부(MMA)	SBS(CSQ)		
49,768	44,300	50,652톤	144,720

○ 정부(MMA) 수입

- 용도: 테이블용, 가공용
- * 마크업이 붙여서 판매되는가?
- 수입가격 보다는 높음(정부 이윤이 있음)
- * MMA쌀은 누가 입찰에 참여하나?
- 양곡 유통업자, 수출입 허가가 있는 자

○ SBS(CSQ: Country Specific Quota)

- 2회에 나누어 수입(1회차 1만 6,500톤, 2회차 2만 7,800톤)
 - 1회차(1만 6,500톤): 미국(1만 톤), 호주(2,500톤), 태국(가공 2,000톤, 밥쌀 2,000톤)
 - 2회차(2만 7,800톤): 미국(1만 6천 톤), 호주(5,000톤), 태국(4,300톤), 이집트(2,500톤)
- 업체가 입찰해서 수입하여 정부에 팔고, 정부가 다시 업체에게 판매하는 구조
- 서류상의 절차일 뿐, 사실상 업체 공장으로 바로 입고
- sbs는 정부쿼터의 하나로, 민간쿼터와 완전 다른 시스템
- 대만 정부는 국제가격을 고려하여 국내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저가를 산출(비공개)
- 업체들이 프리미엄(국제가격과 대만 국내산과의 가격 차이)을 얼마 붙이는데 따라 낙찰 여부 결정
 - * 예를 들어 태국산 가격 600\$/톤, 대만산이 1000\$/톤일 경우,
 - 국제가격과 국내가격의 차이는 400\$이나 업체들은 300\$ 정도에 입찰할 수 있음.
 - 정부는 300\$이 너무 낮으므로 350\$(비공개) 정도로 최저가를 책정해 놓을 수 있을 것임.
 - 따라서 300\$에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입찰가격을 높여야 하며, 입찰가격이 높을수록 낙찰 가능성이 높아짐.

<대만의 2014년 SBS 도입 계획>

	국가	물량(현미, 톤)	입찰공고	도입시기
1차분	미국	10,000	2014년 3월 ~	2014년 1~12월
	호주	2,500		
	태국(가공용)	2,000		
	태국(밥쌀용)	2,000		
	소계	16,500		
2차분	미국	16,000	2014년 8월 ~	2015년 4월
	호주	5,000		
	태국	4,300		
	이집트	2,500		
	소계	27,800		
총계		44,300		

○ 민간쿼터

- 민간쿼터는 완전 공개입찰 방식
- 3회에 나누어 수입(1회차: 1만 5천 톤, 2회차: 2만 6천 톤, 3회차: 1만 5천 톤)
- 통상 50~60개업체가 입찰 참여(등록된 업체면 누구나 자유롭게 입찰 참여 가능)
- 가격 높은 사람이 낙찰(정부에서 총 물량의 20%로 입찰물량을 제한)
- 나라선정 가능(WTO회원국), 국가제한 없이 업체들이 수입 가능

- 국별쿼터를 지정하지 않으나, 품종을 지정하므로 국가가 지정된 것이나 다름 없음.
- 예를 들어 자포니카 품종은 미국에서 수입하게 됨.
- * 가공용은 대부분 민간쿼터로 수입,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밥쌀용은 SBS로 미국, 호주에서 도입함. SBS로 입찰하면 보다 싼 가격에 낙찰 가능
- 민간쿼터는 공개 경쟁입찰 방식인 반면, SBS는 정부가 설정한 최저가를 다소 상회하면 낙찰이 가능하므로 SBS 방식이 보다 낮은 가격에 수입 가능

□ 수입쌀 용도별 판매

- 민간쿼터 물량은 가공용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며, 밥쌀용은 SBS로 미국, 호주에서 주로 도입.
- Song Agriculture Trading Company, TRCIA는 가공용을 주로 수입(Song Company는 전채물량 중 수입산이 약 8% 차지, TRCIA는 2013년 5~6천 톤을 수입)
- 삼호미는 주로 밥쌀용으로 수입, 2013년 기준 전체 취급물량 중 수입산이 약 10% 차지
- 정부(MMA) 물량은 정부가 결정하므로 업체들이 언급하기 어려움.
- WTO협정에서 소포장으로 매대에 올리는 것이 조건이었음. 관세화 전환 당시 수입쌀을 매대에 올린다는 것이 커다란 충격이었음.
- 수입쌀을 급식용으로 팔던 소포장으로 팔던 전혀 제한이 없음

□ TRQ의 물량으로 45NT\$/톤을 부과하고 수입 시 예상 가격 차이

- 가격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TRQ의 수입은 아무도 안할 것임.
- 일부 대만산은 kg당 45NT\$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음.

□ 수입쌀과 혼합미를 같이 취급함에 따른 문제점

- 수입쌀 불법혼합 의심이 있을수 있음.
- 국내산과 섞으니까 맛이 좋아지고, 가격이 많이 내려감.
- 밥쌀용은 법으로 혼합이 금지되며, 가공용은 소비자(고객)의 요청이 있을 시에만 표기를 하는 조건하에 혼합이 가능
- 현재 관련법이 국회 계류중

□ TRQ의 물량으로 45NT\$/를 부과하고 들어오는 물량이 없다고 하는데 관세가 어느 정도 떨어지면 수입이 될 것으로 보는가?

- 불가능해보이나, 1/4 정도로 낮아지면 고려해 볼 수는 있을 것임. 이 경우 대만 농가의 피해는 불가피할 것임.
- 정부가 관세율은 높게 책정한 것을 높이 평가함. 이에 대해 아무도 불만이 없음.

□ 원산지 표기를 잘못할 경우 처벌 기준

- 식당 등에서 값이 싸고 품질도 좋은 쌀을 원하므로 수입쌀과 혼합을 하게 됨. Song Company가 작년에 벌금을 맞은 바 있음

□ 관세화 이후 쌀 시장 변화

- 가격 충격(하락)이 있었음.

- 쌀 수입으로 물량이 늘어나 가격이 떨어져야하나, 농가 보조로 국내산 가격은 다시 상승세로 전환됨.
- TPP로 또 한번 혼란이 올 것으로 판단

□ 한국 정부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?

- 정부는 쿼터를 어떻게 배분하여 관리할 것인지에 포커스를 맞춰야 할 것임.

□ 삼호미는 국내쌀의 주요 유통업체였는데, 수입쌀을 마트에서 처음 판매시 분위기는?

- 정부의 정책에 따른 것이므로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시작함. 현재는 삼호미가 취급하는 태국쌀도 품질면에서 인정받고 있으며, 매년 태국산을 4~5천 톤까지 판매함. 10년 동안 취급해온 결과 수입쌀에도 네임브랜드까지 생겨 수입을 안할수도 없는 상황
- * 수입비중 늘릴 것인가?
- 박리다매를 회사 목표로 소비자의 니즈에 맞춰갈 것이므로 비중이 매년 다를 것으로 판단
- 입찰에 참여해야 하므로 원한다고 늘릴 수도 없는 상황

□ 수입업체들과 지역 농회 브랜드와의 관계는?

- 농회의 브랜드 쌀이 많지 않음. 대부분 농회들이 쌀 유통, 판매에 참여하지 않음.
- 서로 국내산 쌀을 거래하기도 함.



농림서 직원 면담(4월 8일 오후 2시~3시 30분)

- 일시: 2014년 4월 8일(화), 14:00~15:30
- 장소: 대만농업위원회 농림서 6층 회의실
- 참석자: 陳建斌(부회장), 張金榮(과장), 陳素珍

☐ 관세화 전환 이유

- 2002년에 WTO 가입, 예외없는 관세화에 대한 특별조치로 1년간 관세화 유예
- 1990-1992년 소비량 8%(협정문상의 상한) 14만 4,720톤을 의무수입하기로 결정
- 당시 일본의 방식을 벤치마킹하였고, 2003년 관세화 전환

☐ 2002년 관세화 유예를 하였고, 1년 후 관세화로 전환한 이유

- 당시 미국의 압력을 받았음(의무수입량 증대를 요구하였고, 대만정부는 부담으로 판단)
- 미국은 농업협정에 따른 쿼터 증량을 요구하였으며, 상당한 물량을 증량시켜야 하는 상황이 었음.
- 1년 관세화유예 후 관세화로 전환했으며, 완충기가 짧아 사회적 압력 많았음.
- * 2002년에 관세화로 직행했으면 의무수입물량이 없었을 것이나 관세화 유예 선택 이유
 - 대만은 당시에 국제사회 연맹에 뛰어들기 쉽지 않았음(입장권 개념).
 - 1년 정도의 완충기는 필요했음.

☐ 농업협정문 부속서 5의 첨부에 규정된 바에 따라 관세상당치의 계산은 국내가격과 국제 가격의 실제 가격차이를 투명하게 적용

- 기준년도 관세상당치인 53NT\$/kg에서 15%를 삭감, 종량세 kg당 45NT\$ 적용
 - 국내 가격으로는 국내 소비의 대부분을 점유하는 '브랜드 백미'의 도매가격을 '국내시장을 지배하는 대표적인 도매가격'으로 사용
 - 국제가격은 기준년도 태국에서 수입한 가격 사용

☐ TE를 높게 설정할 수 있었던 이유

- 미국, 호주 등이 다시 재검토(설명을 해야한다)를 주장하였고, 미국, 호주의 국별쿼터(CSQ)를 분명히 할 것을 요구하였음.

☐ 일본은 TE검증 빨랐던 반면, 대만은 상대적으로 검증기간이 길었던 원인

- 협상 규정을 정확히 적용하여 TE를 산출하고 꾸준히 주장하였으며, 결국엔 통과되었음.
- 한국 정부도 협상 규정을 따르면서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입장을 주장하고, 협상국을 설득 시켜야 할 것임.

☐ 정부쿼터 MMA 물량의 국내 판매가격

- 시장가격(도매가격) 수준에서 판매하고 있음.

☐ 국별 쿼터

- 국별 쿼터는 2007년 이전 5년간 실질적으로 수입한 물량을 근거로 산출
- 정해진 물량 자체는 안바뀌나, 수입방식(SBS 또는 정부(MMA))은 바뀔 수 있음

☐ TRQ 이외 물량의 수입 상황

-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 도입한 물량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며, 미미한 수준

☐ 수매제를 유지해오고 있는데 그에 대한 협상국들의 이의 여부

- 대만은 1970년대부터 수매제를 실시해오고 있음.
- 미국, 태국이 이의를 제기하였음. 소비자에게 유통되는 과정을 간소화(정부개입 자제)하길 요구함.
- 이에 수매제를 유지하는 대신 수입쌀의 사료용, 원조용 사용을 하지 않기로 하였으며, 수입쌀을 소매로 파는 조건 등 반대급부를 줬음. 이는 미국과 현대판 불평등조약을 맺은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함.

☐ 수매제도 유지의 비용

- 매년 변동, 통상적으로 60~70억 NT\$ 정도 소요(AMS 140억 NT\$, 쌀이 대부분 차지)
- 선진국 기준을 적용하여 국내보조금 수준을 20% 삭감하였음. 작물별 AMS 제한은 없으며 AMS총계만 적용하고 있음.

☐ 한편, 관세화 전환 당시 농가들이 정부의 휴경 계획에 참여가 낮을 것을 우려하여 휴경 보조금을 ha당 4만 1,000NT\$에서 4만 5,000NT\$로 인상

- 정부 재정지출이 많았음.
- * 휴경보조금 AMS 포함 여부
 - Green Box(허용보조)로 분류됨.
 - 그 외에 고품질 정책, 계약재배 확대 등의 정책들이 펼쳐왔음.

☐ 관세화 전환의 평가

- 당시 연구들에 의하면 관세화 이외의 방법은 없었음.

☐ 관세화시 국회 동의 등의 절차

- 그 당시 국내에서 영향이 크지 않았고, 절차가 복잡하지 않았음.
- 관세화로 의무수입량이 증가하는 것도 아니었고, 관세율도 높았기 때문

대만대학교 농업경제학과 방문(4월 8일 오후 4시 30분)

- 일시: 2014년 4월 8일(화), 16:30~17:30
- 장소: 대만대학교 농업자원경제학과
- 참석자: 吳榮杰 학과장

☐ 공식적이지 않지만 대만 학계는 수매제를 폐지하고 직불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

○ 보증 가격으로 구매하는 것은 WTO 정신에 위배(AMS 문제)

☐ 대만은 2002년 관세화를 유예하고 일본을 벤치마킹 하였음.

○ 1999년 일본이 관세화로 전환한 이후 대만도 적극적으로 준비

○ 일본이 왜 관세화로 전환하였는지 연구하였음.

- 일본은 관세화 전환후 수입량(의무수입량 외) 증가가 없었음.

- 일본 국내가격과 수입가격이 연동이 되는 것을 확인

○ 대만도 일본처럼 쿼터의 관세를 최대한 높게 설정한 결과, 의무도입량이 14만 톤 내외로 수입량이 유지되고 있음.

☐ 대만이 WTO에 가입하기까지 12년이 걸렸음.

○ WTO에 가입하기 위해 많은 준비와 노력을 하였음.

- 생산량 조정(감산 정책), 수매제 등의 대안이 있었음.

- 수매제로 농가 소득에 큰 변화가 없어 영향이 미미하였고, 소비자도 가격 등락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.

☐ TE가 높아도 관세화 전환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

○ 국내가격, 국제가격 등 통계를 확실하게 준비하고, 협정 규정에 맞게 산출하면 문제의 소지 없을 것으로 예상

- 대만의 경험상 TE를 최대한 높게 설정하여 협상에 임하는 것이 필요

☐ 농업인과 농민단체 등에 충분한 설명이 필요

○ 대만은 관세화 전환 시 휴경보조 등 관련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을 실시

☐ 관세화 전환에 따른 정책가운데 휴경보조가 가장 많았음.

○ 현재는 1모작에 한해 휴경보조를 실시하지만, 처음에는 2모작 휴경까지 모두 지급하였음.

- 과거 2모작으로 물 부족 문제 발생하여 계기가 됨.

- 타작물 재배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음.

○ 감산정책 실시와 소비 감소로 안전재고(적정재고) 30만 톤이 거의 소진되기도 하였음.

* 이후 다시 재고 누적 문제가 발생해오고 있음.

☐ 관세화에 대한 평가

○ 언제가는 해야할 일을 한 것으로 판단

○ 일본을 따라 관세화로 전환하여 수입량이 증가하지 않았고 큰 충격이 없었음. 한국처럼 관세화 유예를 했다면 당연히 의무수입물량 누적 문제가 발생했을 것임.

○ 결과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한 것으로 평가

☐ 많은 학자들은 현재 수매제를 폐지하고 한국처럼 직불제로 전환을 주장

○ 시뮬레이션 결과, 대만이 수매제 폐지 시 시장가격이 30% 정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며, 이를 직불제로 보완하는 방식 필요

○ 직불제 전환 시, 고정직불금만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음.

* 고정직불금만 지급시, 풍작으로 가격 급락할 경우 농가소득 감소문제의 해결방법

- 수매제도를 완전히 폐지하지 않고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이 필요

☐ 수매제 폐지 시 예상되는 농가의 애로사항

- 현장의 소리를 들어본 결과, 농회는 크게 불만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.

- 다만, 농업인들은 목소리는 아직 파악하지 못한 상황

☐ 2002년 WTO 가입후 바로 관세화로 가지 않고 관세화 유예 선택 이유

○ 당시 한국처럼 개도국 대우를 요구하였으나, 선진국으로 강요받았음.

○ WTO 가입을 위해 대만 농업이 희생을 한 것이라고 판단

☐ 한국의 관세화 전환여부 결정 과정에 해주고 싶은 조언은?

○ 농업인, 농업인 단체 등과 커뮤니케이션과 교육에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임.

- 국내외 시장이 맞물려 갈수 있다는 점을 시사 필요

- 관세화 개방 시 가격 하락의 문제가 발생하여도 한국은 직불제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는데 이러한 점을 농업인들에게 인지시킬 필요

○ 의무수입량의 사용 용도는 일본의 방식을 참고할 필요

- 일본은 대만과 달리 사료용, 원조용으로도 지정할 수 있음.

Tsaotun 농회 면담(4월 9일 오전10~12시)

일시: 2014년 4월 9일, 10시~12시

장소: Tsaotun 농회 회의실

참석자: 林傳琦(농업위원회지구본부서 부분서장), 蕭忠郁(Tsaotun 농회 총간사), 林家佑(농업인), 陳天色(농업인)

- Tsaotun 농회는 1914년 4월 설립되었으며, 올해 100년째로 SGS 인증을 받았음.
- 2013년 경작면적은 110ha, 농가 50호가 계약재배(많을 때 200농가까지)
- 작년 수매는 615톤, 소포장으로 380톤 출하
 - 9호쌀이 주요 품종으로 가장 많이 팔리고 있음.
- 2005년 이후 수매가격은 꾸준히 상승
 - 작년 계약재배 수매가는 kg당 25.97NT\$(전년대비 2.68NT\$ 상승)로 시가(24.29NT\$)보다 높았음.
- 재배, 이력 관리, 타지역 사례조사, 품질경연대회(전국대회와 별도) 등을 매년 실시
 - 농회 자체적으로 계약재배 농가의 지도사업, 농약잔류검사, 수분검사 등 실시
 - 계약재배 이외 농가들에게도 교육을 하고 있음.
- 농장체험, 쌀선물세트, 타이페이 시내(희망광장)에서 전시판매 등 다양한 홍보 및 판촉 활동
 - 대만은 결혼식 답례품으로 주로 쌀선물세트를 이용

□ 쌀 이외 주요 재배작물

- 쌀이 주산물이고 울무, 포도 등 재배
- 관세화 전환 이후 리치, 포도 등으로 전작이 많았음.
- 관세화이후 전작과 휴경을 복합적으로 실시
 - 농가는 전작으로도 소득을 올릴 수 있고, 휴경으로 보조금(4만 5천NT\$/1ha)을 받을 수 있기 때문

□ 대만은 관세화 이전 과잉 생산이었으며, 관세화 전환이 기회였음.

- 재고과잉 문제가 있었으나, 품질이 좋으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함.
- 현재 쌀이 수입되고 있으나, 맛과 품질 차이 때문에 수입쌀이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

□ 계약재배 농가가 200농가에서 현재 50농가로 감소한 원인

- 최고 많았을 때 300농가까지 계약재배를 실시하였음.
- 규모화된 농가 위주로 선별해 온 결과임. 계약조건을 맞추기 유리하기 때문
- 20ha도 이상을 재배하는 농가도 있음(오늘 참석 농가)
- 좋은 쌀을 판매할 수 있었던 것은 육종부터 수확, 판매까지 농회가 관리해오고 있기 때문

□ 쌀 관세화 전환 당시 분위기

- 2002년에 충격적이었던 것은 사실이나, 돌이켜 보면 심리적인 문제였다고 판단
- 휴경보조 등의 정책 대안, 농업인과의 소통 및 교육 등으로 슬기롭게 대처 한것으로 평가

- 정부는 관세화 이전 지역 농가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였고, 농가도 많이 배우는 기회가 되었음.
- 한국의 신도불이를 벤치마킹하기도 함.
- 농업인, 농민단체 등의 반대가 있었으나, 쌀이 주요 아이টে이므로 상징적인 의미가 컸다고 판단

□ 관세화에 대한 농업인 생각

- 관세화 전환 당시 충격이 컸고, 우려스러웠으나, 개방 이후를 돌이켜 보면 실제로 큰 변화가 없었음.
- 소비가 계속 줄고 있음. 우리가 농사를 짓고 판매할 수 있는 것은 일본 쌀 가격보다 낮고, 동남아 쌀 가격보다 높지만 품질면에서 경쟁력이 있기 때문임. 지역내 재배농가들은 미질 향상이 중요하다고 인식, 대부분 농민들이 대만쌀의 품질을 더 높이고 차별화시키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음.
- 관세화 전환 이전 농회에서 많은 정보(관세화 영향, 국제 시장 등)를 제공해서 도움이 됨.



Wufeng 농회 면담(4월 9일 오후2~4시)

일시: 2014년 4월 9일, 10시~12시

장소: Wufeng 농회 회의실

참석자: 黃景建(Wu-Feng 농회 총간사) 외 임직원

□ 협회 소개

- 2004년 쌀 도정공장이 설립, 2005년 CAS(Certified Agricultural Standards) 인증
- 판매부에서 공동구매해서 비료 농약 등을 판매
- 안전성을 위해 검역을 실시
 - 창고 입고되기 전 수분과 품질등을 검사하여 분리, 품질이 높으면 인센티브 지급
 - 안전한 쌀 공급을 위해 매입한 벼를 전용 창고에 냉장보관
- 고품질 쌀의 판로확보가 중요
 - 판매 유통부 창설, 판촉활동, 브랜드, 포장 등 홍보를 위해 노력
 - 싱가포르에 판촉 활동 예정

□ 쌀 관세화를 앞두고 2001년부터 구조조정 등 준비를 시작

- 당시 수매 중단, 휴경보조 실시 등이 시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, 우리 지역 농업인 들의 99% 이상이 쌀 농사를 지속할 것으로 결정

□ 관세화 전환 시기에 품질면에서 월등한 신품종 대농72호쌀(향미) 재배를 시작하는 단계였음.

- 계약재배로 정부 수매가보다 높게 매입(산물벼)
 - 최근 매입가격은 kg당 60NT\$로 일반 시장가격보다 50% 정도 높음.
- 처음 도입 당시 도복이 많았으나, 품종개량으로 개선

□ 수매가가 시장가격보다 높지만 판로 확보로 문제없음.

- 생산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고, 품질(농약잔류 등)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판로를 확보하고 있어 문제없음.
 - 2004년 전국 쌀 경진대회에서 1등
- * 수매가와 수매량 결정
 - 농회 관계자와 작목반 대표 등이 참석하여 협의를 통해 결정
- * 이윤배당은 없으며 매취사업과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음 .
- * 매입자금의 조달
 - 유통사업부가 신용사업 파트에서 융자

□ 수입쌀과의 경쟁력

- 품질면에서 경쟁력이 높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판단

□ 쌀 시장 개방후 달라진점

- 개방 후 수입쌀 먹어본 사람들이 품질이 좋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였음. 오히려 품질이 월

등한 우리지역 쌀 판매량이 증가하였음.

□ 타지역 농회 현황

- 개방에 대비 신품종을 권장했으나, 리스크가 있어 참여가 저조했음. 현재는 타지역에서 재 배를 희망하고 늘려가는 추세
- 농량서 부분서장 보충 설명
 - 당시에 농업실험소가 농업인과 소통을 잘했음.
 - 또한 농회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했는데, Wufeng 농회는 향미 시장을 개척한 농회임. 타지 역도 품종개발을 통한 경쟁력 제고가 필요

□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가공제품 공장(양조장 등)을 운영

- 가공식품 판매로 부가가치가 더 높아졌음. 그러나 향후에도 소비자의 신뢰를 유지하는 것 이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

□ 대만의 벼 재배농가로서 한국 생산농가에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?

- 농회의 수매가격이 높아져 관세화 이후 오히려 생산비는 줄고 소득은 올랐음.
- 개방이되더라도 품질제고를 통한 차별화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, 성공할 수 있음.
- 대만 정부 및 농회에서 판로확보(결혼선물 등)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, 아이디어를 제공해 줬음.

